

투데이 칼럼

메세지 전달능력의 기법

커뮤니케이션은 콘텐츠와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줄기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만들기가 필요하다. 핵심을 꿰뚫는 내용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므로 핵심 콘텐츠가 설득력이 있으면 스타일(표현력)이 다소 미흡해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력이 아무리 좋고 깔끔해도 들을 만한 내용이 없는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물론 내용 만들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노력과 학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내공이다.

내용이 짧으면서도 자세하고 함축적이면서 이해가 잘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한다.

길고 지루하게 요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써 놓은 글이나 말을 접할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상대에 대해 평가할 바를 하게 된다.

메시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힘 있는 메시지이고 힘없는 메시지가 있는데 힘 있는 메시지는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고 힘없는 메시지는 듣고 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김 양 옥 한국 스피치·음변협회 전북회장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은 대부분 힘없는 메시지가 된다. 상품마케팅이나 정치캠페인 모두 국민을 설득하는 스피치로 해야 한다.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핵심메시지가 짧고 명확해야 좋다.

상품마케팅이나 선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특히 내용과 포장이 모두 좋아야 그 스피치는 성공할 수 있다.

상품이나 사람이건 조직이건, 내용과 포장이 다 좋아야 알아주는 시대이다.

사람도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겠다'고 기대하고만 있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너는 너 자신을 제값에 팔지 못했다

다는 것이 잘못이다 는 말이 있다.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상품마케팅이나 정치나 '규정하기'의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 '규정하기'에서 유리한 틀을 선점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연설에서 인터뷰에서, 상품광고에서, 현수막에서 토론에서 한 줄의 '강판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짧고 구체성 있게 우리 상품과 후보의 핵심컨셉을 알려야 잘 하는 스피치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바쁜 삶을 살고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추세이다.

그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를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알릴 수 없을 때 그 상품이나 후보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감 있고 구체적 표

현력을 길러야 한다.

스피치기법 터득하여 눈에 보듯 시각적으로 말하고 그 표현에 열정과 성실함이 살아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고교생들의 발표 시간에 '성실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그 학생들 중 한명이 "우리 아버지는 과일가게를 하며 30년 동안 저축을 금을 양심적으로 속이지 않아서 성실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표해서 칭찬을 받았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원칙은 이 '규정하기'에서, 필자는 9개 원칙을 소개한다.

핵심의 원칙, 간결성의 원칙, 단순함의 원칙, 행동감의 원칙, 긍정의 원칙, 공감의 원칙, 스토리텔링의 원칙, 시각화의 원칙, 유머의 원칙이다.

이 원칙과 사례를 잘 활용하는 스피치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요 사이는 정치선거, 각종 선거로 자신의 능력을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시대이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성공하고 싶다면 핵심컨셉트와 스타일(포장)을 학습하는 스피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사설

연락 두절 신천지 신도 끝까지 추적해야

연락 두절 신천지 신도에 대한 추적이 절실하다. 저번에 전주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다.전수 조사가 전화로 물어 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미덥지 않다고 했는데 열려가 현실이 되었다. 행정 명령을 발동해 67곳의 시설을 폐쇄하고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역시나 기우가 아니었다.

연락두절인재 비협조로 나오고 있는 331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시급하다.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 19 보균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중에 며칠 전 도내 일곱번 째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주 팔복동 신천지 교회에서 지난달 16일에 예배를 보았던 20대 여성 말이다. 지난달 16일 이번 감염을 경계해 마땅한 때였다. 확진자로 드러난 그 여성도 문제지만 신천지 교단이 어제 그리 생각이 없는 지 폭폭하다. 전북도가 아직도 숨어 있는 신천지 신도 추적에 나섰는데 마땅한 조치이다. 여기 그때 사실에 이어 거듭 말하거니와 신천지 신도를 추적하는 것은 사람 목숨이 관련된 일이다. 따라서 행방이 묘연한 331명의 신천지 신도에 대한 추적은 당연하다.

하루 하루 뉴스를 시청하기가 겁날 지경이다.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와 사망자들이 구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제보해줄 것을 호소한 것은 당연하다. 확진 환자를 보면 신천지 신도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가 많다. 신천지와 상관없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의 경우도 동선을 추적해보면 대구를 방문한 전력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는 신천지 신도들은 물론이고 예비 신도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들은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기자회견 뒷맛이 사흘이 지나도록 역겹다. 너무나 뻔뻔한 껌이다. 국민에게 잘못을 빌며 절하고 정부를 향해 또 절을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보는 이는 없다. 처음에는 두려운 듯 떨리는 음성이었으나 주변이 소란하자 그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시끄럽다고 호통을 친 것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때에는 '엄지척'의 퍼포먼스를 취했다. 그거 과연 응서해달라고 비는 자의 태도일까.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

연락두절인재로 숨어다니는 신천지 신도 331명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도민 모두의 바람은 지역 발전이다

도민 모두의 바람은 지역 발전이다. 전북도는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난해 탁월이를 하더라도 주요 현안들을 생각해야 한다. 언제 쯤이나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답답하다. 코로나 19 때문에 경황이 없는 때라지만 그래도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 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과 소망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겠다. 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경제 살리기 대책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경제 살리기 대책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경제 살리기 대책은 요원하다.

신소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겠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날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 기동이 어렵다면 저번에 잘라 말했던 대로 나가야 한다.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짝사랑을 접고 전기차 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기자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경제발전과 현안 추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폭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도시사와 각 시군의 단체장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때때마다 당부한대로 다들 합치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코로나19 확산, '술' 모임 당분간 자제해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 꼭 필요한 외출 외 회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각종 술 모임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술 기운에 감정이 격해져 폭력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온 국민이 힘쓰고 있는 시기에 술에 취해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관할에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신고 현장에 가보면 신고 관계자가 20대 초반이거나 대학생들이 많고 대부분 술에 취해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대학생들이 학교 친구 또는 동창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

고 시간이 지나 과해진 술로 인해 함께 한 친구들 또는 주변 주민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 등의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지구대에서 폭행 시비로 조사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일 근무 하던 경찰관 9명도 지구대에서 장시간 보호 조치되었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었다. 이 또한, 신고 관계인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주변 주민과 시비가 되어 접수된 신고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까지 소규모 술 모임이라도 가급적 피하고 각자 각자가 안전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하루 속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김주일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코로나19' 위기,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될 때

지금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부처 및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마스크 매점매석 등 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각종 가짜 뉴스 및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 보건기관과 유기적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신속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검사 대상자

의 소재확인 등을 지원하고, 유언비어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 등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19에 확산방지를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보건당국의 감염병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등을 준수해야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 19를 극복해 나가야겠다.

소순현 남원경찰서 경비직계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